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 완벽 수행

2024 전남체육 결산

전남도체육회가 2024년 엘리트·생활체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전남체육의 명예를 드높이고, '도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 실현'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공정과 육성, 화합, 소통의 4가지 핵심가치에 공정한 체육실현, 글로벌 전문체육 강화, 화합과 조화로운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문화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굼뚱뚱뚱한 성과를 거뒀다. 올 한해를 빛낸 전남체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전남의 명예를 드높인 전남 소속 및 출신 선수 환영행사



2024 전남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이 지난 12월 열린 '2024 전남 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포츠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실현' 기치...전 세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대학·실업팀 창단 '박차'...공공스포츠클럽·생활체육 각종 기금사업 공모 팔목 성과

전남은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올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 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선수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화합과 '맛과 멋의 고향' 전남을 널리 알리는 최고의 홍보효과도 누렸다.

이어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6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제19회 전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 매년 개최하는 도내 종합

체육대회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축제로 치러졌다.

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력 향상에 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체육의 안정적인 연계 육성을 위해 고흥군청 태권도팀과 목포대 육상 탁구팀을 창단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대한체육회의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고 2억7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37종목 316명의 우수선수와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 지원했다.

그 결과, 파리올림픽에서 전남 출신·소속

10명의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이 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다.

지난 10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도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 1천74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9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79개 등 총 156개의 메달과 종합득점 3만2천363점으로 종합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울산에서 열렸던 제108회 전국체전 대비 종합득점 881점, 종합순위 1등위 상승된 성적으로 내년 부산 일원에서 개최될 제1

08회 전국체전의 전망을 밝혔다.

전남체육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도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앞장섰다.

90여 개의 전남도지사기 및 전남도의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해 도민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인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 확대에도 힘썼다.

특히 유아체육 활동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행복나눔교실, 스포츠버스, 생활체

육 안전교실, 어르신체육활동,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기금사업의 프로그램에 적극 공모하여 19개 사업 약 90억원의 국비를 확보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중인 전남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연계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 제1회 스포츠클럽교류대회 개최를 위해 처음으로 도비 4천만원 확보하기도 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올 한해도 전남체육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체육이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도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전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V13' 마지막 퍼즐... '파워히터' 위즈덤 영입

KIA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 겸비...중심 타선 시너지 효과"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며 V13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했다. KBO 리그에서도 손꼽힐 거포 자원으로 평가받는 위즈덤은 중심타선의 한 축을 맡아 KIA의 연속 우승을 현실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KIA는 28일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33)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위즈덤은 신장 188cm, 체중 99kg의 체격을 지녔으며,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7시즌 동안 활동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455경기에 출장, 통산 타율 0.209, 274안타 88홈런 207타점 192득점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439경기에서 타율 0.253과 391안타 89홈런 277타점 248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사카고 컵스에서 75경기에 출장해 타율 0.171, 27안타 8홈런 23타점 16득점을 올렸고, 마이너리그에서는 9경기를 뛰며 11안타 3홈런 10타점 9득점 타율 0.407을 기록했다.

위즈덤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장타력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으며, 최다 28홈런을 기록하는 등 파워히터로

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KIA 타선과의 상당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타선에 위즈덤이 가세하면서 팀 장타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로 3명의 좌타자가 포진해 있던 중심타선에 우타 거포가 합류하면서 상대 투수진을 상대로 한 라인업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장타력과 함께 수비에서도 1루수와 3루수, 외야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포지션 능력까지 갖춰 공수 양면에서 KIA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평균 이상급의 주루 스피드와 준수한 송구 능력은 덤이다.

KIA 관계자는 "위즈덤은 1루, 3루와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선수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쓰임새가 높은 선수이다"면서 "중심타선에서 팀 장타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구성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앞서 '에이스' 내일과 애덤 윌러를 확보해 선발 마운드를 강화한 KIA는 강타자 위즈덤까지 영입하면서 2025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 외국인 선수 애덤 윌러와 위즈덤이 KBO리그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다. 이들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계약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의 활약 여부가 KIA의 새 시즌 성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선수들과의 빠른 조화를 이루고 KBO 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KIA는 2025시즌 V13을 향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홍철기자



"여러분이 광주체육의 밝은 미래"

광주시체육회, 2024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

광주시체육회는 28일 광주시체육회 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광주를 대표하는 대학부 우수선수 12개 종목, 85명 명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배준석(조선대 2), 복싱 이해준(남부대

1), 양궁 채진서(조선대 3)를 비롯한 종목별 전국대회 입상 선수들로 장학금은 개인별 경기력과 대회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장갑수 체육회장은 "한 해 동안 학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광주를 대표하는 대학부 우수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5년 을사년에도 광주를 대표해 활약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축구협회장에 최수용 당선

선거인단 경선서 72% 득표

제4대 광주시축구협회장에 최수용 광주시축구협회 부회장(금호고 축구 감독·사진)이 당선됐다.

광주시축구협회는 28일 후보로 등록한 박현길(현 광주시축구협회장) 후보와 최수용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 결과 최수용 후보는 투표 참여 선거인단 52명 중 37표(득표율 72%)를 획득, 신입 회장으로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1995년부터 금호고 축구 감독을 맡아 기성용, 이승기, 김태환, 나상호, 엄원상, 임지성, 허을, 이희균까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명지도자다.



최 당선인은 유소년 축구의 영재 발굴 프로젝트와 해외 교류를 통한 성장 속도 가속화, 여자축구팀 창단과 육성, 축구장 건립, 동호인축구 활성화를 위한 앱 개발, 축구장 사용 시스템 및 경기 매칭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표심을 잡았다. /박희중기자

신입 김주찬 QC코치·김민우 수비코치 이범호 감독 보좌

KIA, 2025년 코칭스태프 개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 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군은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손승락 수석 코치와 김주찬 QC 코치, 정재훈·이동걸 투수 코치, 홍세완·조승범 타격 코치, 조재영 작전 코치, 윤해진 주루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타케시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퓨처스팀은 진갑용 감독과 이상화·이정호 투수 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 이현곤 작전, 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또한 잔류군은 김석연 총괄 코치와 서덕원 투수 코치, 박효일 수비 코치로 구성을 마쳤다.

KIA 관계자는 "각 파트별로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을 잘 지도해준 덕분에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5 시즌도 변함없이 선수단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홍철기자

2025 KIA TIGERS 코칭스태프	
1군	퓨처스
감독 이범호	감독 진갑용
수석 코치 손승락	투수 코치 이상화, 이정호
QC 코치 김주찬	타격 코치 최희섭
투수 코치 정재훈, 이동걸	수비 코치 박기남
타격 코치 홍세완, 조승범	작전 주루 코치 이현곤
수비 코치 김민우	배터리 코치 이해창
작전 코치 조재영	전류군 총괄 김석연
주루 코치 윤해진	전류군 코치 서덕원, 박효일
배터리 코치 타케시	